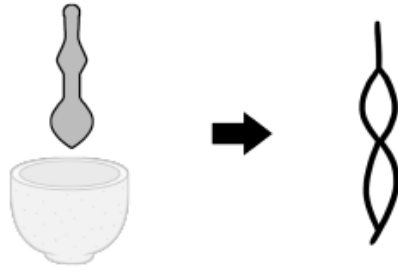


7(2)  
-  
31

상형문자 ①



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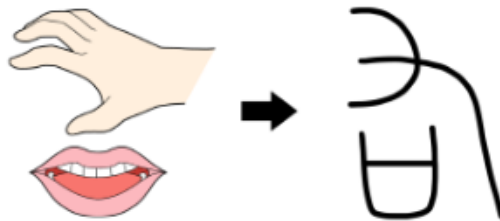
낮 오

午자는 '낮'이나 '정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午자는 절굿공이를 그린 것이다. 午자의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절구질을 할 때 사용하던 절굿공이가 ↑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午자의 본래 의미도 '절굿공이'였다. 그러나 후에 午자는 '정오'나 '낮'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杵(공이 저)자가 '절굿공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32

회의문자 ①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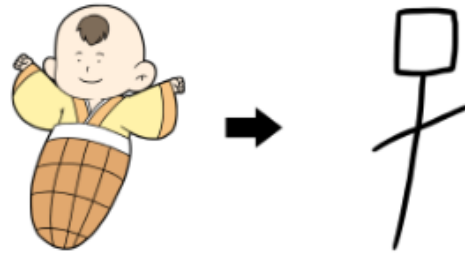
오를/  
오른(쪽)  
우

右자는 '오른쪽'이나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右자는 금문에서야 등장한 글자이다. 갑골문에서는 又(또 우)자가 '손'을 통칭하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又자가 '다시'나 '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손과 관련된 다양한 글자가 파생되기 시작했다. 右자는 '손'을 뜻했던 又자에 口자를 더해 '오른손'으로 구분한 글자이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右자는 口(입 구)자가 쓰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유래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는 도움이 될듯하다. 참고로 又자에 工(장인 공)자를 더하게 되면 '왼손'이라는 뜻의 左(왼 좌)자가 된다.

금문	소전	해서

7(2)  
-  
33

상형문자 ①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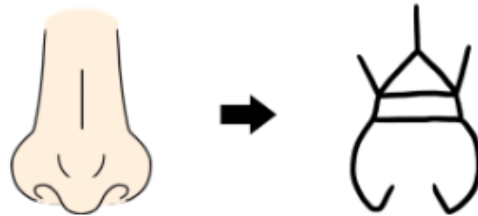
아들 자

子자는 '아들'이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자자는 포대기에 싸여있는 아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양팔과 머리만이 그려져 있다. 고대에는 자자가 '아이'나 '자식'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중국이 부계사회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되었고 후에 '자식'이나 '사람', '당신'과 같은 뜻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자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아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34

상형문자 ①



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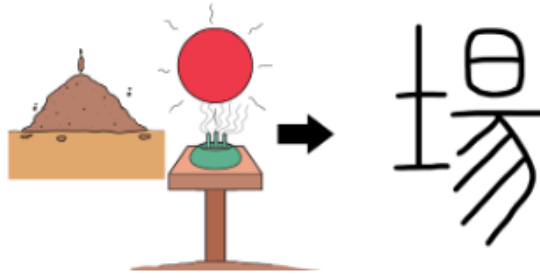
스스로  
자

自자는 '스스로'나 '몸소', '자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자자는 사람의 코를 정면에서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코와 콧구멍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자의 본래 의미는 '코'였다. 코는 사람 얼굴의 중심이자 자신을 가리키는 위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이 얼굴을 향하게끔 한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면서 자자는 점차 '자기'나 '스스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자자가 이렇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鼻(줄 비)자를 더한 鼻(코 비)자가 '코'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35

회의문자 ①



場

마당 장

場자는 '마당'이나 '구획',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場자는 土(흙 토)자와 易(별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易자는 햇별이 제단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햇별이 내리쬐는 모습을 그린 易자에 土자가 결합한 場자는 넓은 마당에 햇별이 내리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場

소전

場

해서

7(2)  
-  
36

회의문자 ①



電

번개 전

電자는 '번개'나 '전기', '빠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電자는 雨(비 우)자와 申(펼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申자는 번개가 내려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電자의 하단에 있는 申 것은 申자가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電자는 비구름 사이로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電자는 '번개'나 '전기'라는 뜻이 있지만, 번개가 치는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빠르다'나 '번쩍이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있다.

電

금문

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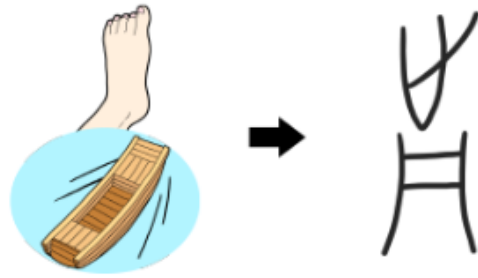
소전

電

해서

7(2)  
-  
37

회의문자 ①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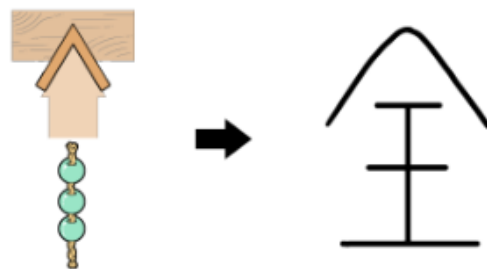
앞 전

前자는 '앞'이나 '먼저', '앞서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前자는 月(달 월)자와 刀(칼 도)자와 함께 상단에는 머리 모양이 丩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前자의 금문을 보면 舟(배 주)자와 止(발 지)자가 결합한 𠂔(앞 전)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배가)앞으로 가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 소전에서는 𠂔자가 '앞'이나 '앞서 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舟자가 月자가 바뀌었고 止자는 丩로 변형되었다. 여기에 刀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의 前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해서에서 刀자가 더해진 것은 '가위'를 뜻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자르다'라는 뜻은 剪(자를 전)자로 따로 만들어지면서 뜻이 분리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38

회의문자 ①



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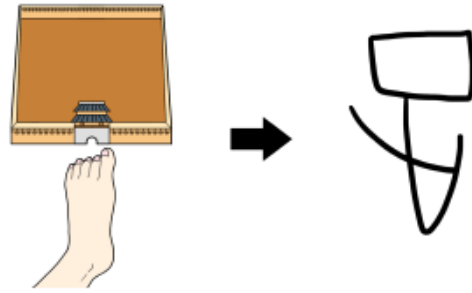
온전(할)  
전

全자는 '온전하다'나 '갖추어지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全자는 入(들 입)자와 玉(옥 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入자는 무언가를 끼워 맞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들어다'라는 뜻이 있다. 全자는 이렇게 '들어다'라는 뜻을 가진 入자에 玉자를 결합한 것으로 옥을 매입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값비싼 옥을 사들일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全자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다. 全자는 옥에 흠집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7(2)  
-  
39

회의문자 ①



正

바를 정

正자는 '바르다'나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正자에서 말하는 '바르다'라는 것은 '옳을 일'이라는 뜻이다. 正자는 止(발 지)자에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正자를 보면 止자 앞에 네모난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성(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正자는 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正자는 성을 정복하러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正자는 자신들이 적을 정벌하러 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바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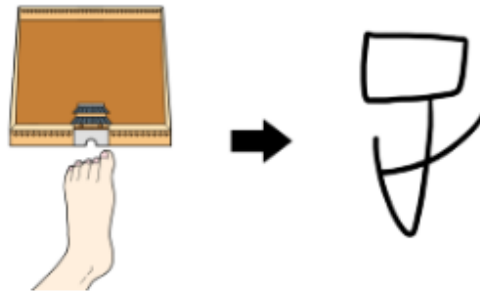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40

상형문자 ①



足

발 족

足자는 '발'이나 '뿌리',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足자는 止(발 지)자와 口(입 구)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足자에 쓰인 口자는 성(城)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止자 더해진 足자는 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실 足자는 正(바를 정)자와 같은 글자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글자가 분리되면서 正자는 '바르다'나 '정복하다'를 뜻하게 었고 足자는 단순히 '발'과 관련된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足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부분이 '발의 동작'이나 '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